

일자리 창출로 복지 실현

완주군, 1만4000여개 일자리 창출해 '모바일 완주' 만들어

완주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1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군민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완주군은 3대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모바일(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완주' 실현을 위해 주요 부서에 일자리팀을 설치하고, 유기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분양에 따라 3년 동안 18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1단계는 지난해 입주기업의 본격 투자로, 1200여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현재 용지 보상 중인 테크노밸리 2단계가 완료되는 오는 2021년에는 130

여개의 기업유치를 통한 1만452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도 주민의 구직 갈등을 해결해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일자리지원센터와 여성새일센터를 운영, 850여명의 취업을 앞선해왔다.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노인여가코디네이터 활동지원 등 노인 관련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연 13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까지 실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건강한 밥상, 학교 공공급식 등의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농업 관련 일자리는 수(數)는 작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2017년 일자리 사업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각종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청년 일자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제정하고 청년기본계획 구상을 마친 만큼, 내년부터는 청년 창업 및 귀농, 청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교육·문화·안전·행정 분야에서도 창출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일자리 만개(滿開) 창출은 모두가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일자리로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한기, 건강챙기며 여가즐거요”

무주 안성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호응'

무주군 김중규 안성면장이 농한기 주민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요가와 노래, 난타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들은 모

두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진행된다.

김 면장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있다 보면 우울해지기 쉽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마련"이라며 "주민자치센터 여가 프로그램들은 자연스

럽게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바깥활동과 취미·친교생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흥보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노래교실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악기를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난타교실은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장단 맞추기 기본 단계부터 악기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돕고 있다.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을 결합한 심신 수련 운동인 요가교실은 매주 목요일 4시에 진행된다. 관절염 예방법과 건강관리, 식이요법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은 "농사일도 끝나고 한가해진 때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배우며 시간을 보내는 게 재밌고 좋다"며 "무엇보다도 나를 가꿀 수 있는 취미가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안성면 여가 프로그램으로 요가와 노래, 난타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완주군, 저출산 극복시책 추진 '잘했어요'

경진대회서 우수상 받아...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완주군이 지자체의 '뉴-베이비붐(New Baby-boom)' 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완주 Re-베이비붐 프로젝트'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광역 지자체의 1차 심사를 거쳐 확정된 전국 9개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율 제고 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완주군은 다양한 시책으로 구성된 완주 Re-

베이비붐 프로젝트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결혼친화 시책으로 '사랑의 오자교'와 '완주 프로포즈 축제'를 개최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제고했다.

또한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 이상 600만원(분기당 30만원, 5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함께 다문화여성 친정모(母) 산후도우미 초청사업(연평균 30명) 등을 통해 출산양육 장려의 사회분위를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정 300 프로젝트, 베이비맘 500원 택시 등의 양육친화정책도 운영해 아이 기르기 수월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완주군의 차별화된 출산양육 시책은 출산율 상승(2014년 1.57%→2015년 1.69%)은 물론,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얼마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 전북의 상당수 지역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쇼벨'을 우려할 정도에 있다"며 "출산과 양육에서 부담없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만큼, 앞으로 여성의 파부에 외닿는 저출산 극복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청 직원연구모임 성과발표회 성황리 열려

장수군청 직원연구모임 성과발표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장수군 보건의원 대회의실에서 김윤섭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직원, 연구모임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모임 팀별을 구성해 주요활동성과와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총 8개팀으로 구성된 'keep-agro', '다이나믹 장수', '장수 지킴이', '플루토스', 'B.S.C.', '그린파워', '꽃바람', '보급자리 등 참가해 ▲장수 지역 맞춤형 연중 조식류 생산체계구



축 ▲도농교류 6차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우리 장수 안심길 프로젝트 ▲유류 군유재산 활용방안 ▲절라북도 1등 생태관광지 조성 ▲산림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추진 ▲도서관의 역할 재정조 ▲장수군 공무원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주제로 최우수팀 선정위원 겸함을 받았다.

김윤섭 부군수는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업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맞춤형 연중 조식류 생산체계구



천상의 하모니 진안에 울려 퍼지다

아카펠라 그룹 '보이쳐' 가족하모니 콘서트 개최

진안군은 11월 문화가 있는 주간의 맞아 지난달 29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아카펠라 그룹 보이쳐의 가족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하여,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로 천상의 하모니를 선보였다.

이날 문화의 집 마이홀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240명의 관객들로 가득 찼으며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단위의 관객이 많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연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타요버스, 코코몽 등 만화주제가 메들리에서부터 성인들을 위한 세계적인 팝송 카펜터스의 히트곡 메들리, 추억의 CM송 메들리, 트로트 메들리와 어르신들을 위한 아리랑 등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좋아할 만한 곡들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앞서서 구경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 공연도중 아카펠라를 배워보고 관객과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통해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공연 내내 관객들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다른 악기의 반주 없이 오롯이 5명 멤버의 목소리만으로 반주를 만들어내고, 아름답고 완벽한 화음을 내 듣는 내내 관객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공연이었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앵콜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마을이 경쟁력이다'

군,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박차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의 마을경쟁력 강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형농촌관광객맞춤형서비스를 비롯한 ICT 창조마을만들기와 체험관광형슬로푸드마을 조성 등 국·도·비 사업에 선정(50여억 원)되며 인프라 조성 여건을 마련했고, 12개 마을에서 농촌관광활성화중점시범사업과 깨끗한 마을만들기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화생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및 관광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무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를 결성해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 관리를 체계화시켰다.

봄, 여름, 가을, 늦가을(초겨울) 축제로 진행된 마을로 가는 축제는 올해 해 53개 마을이 참여해 3만여 명 방문, 4억 4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농촌활력증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사업을 통해 올해 6개 사업소를 추가로 인증(총 14개소)했으며 앞으로는 도농연

계 6차 산업화사업을 통해 컨설팅과 경영체 간 상호연계 사업추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귀농·귀촌인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고 체제형 가족실용농장과 귀농귀촌의 집, 농촌체험실이 공간을 조성하는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했던 군은 귀농귀촌지역으로서 무주군의 매력을 보여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수도권 도시민 상담과 귀농학교를 운영했으며 집들이 비용과 농가주택수리비용 등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마을만들기 사업소 김기욱 소장은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안정적인 이고 도시민들이 와서 살기에 편한 곳이 제대로 된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청년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소득, 환경, 복지 등 분야별 모델마을을 만드는 데 주력해 마을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일목재산업, 진안군에 이웃돕기성금 전달

전일목재산업(주) 김병진 대표(63)가 진안군 저소득층 가정 주택 신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 연계하여, 주택이 노후되어 붕괴 위험에 처한 저소득 가정의 주택 신축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김병진 대표는 진안군 동향면 출신으로 김제시 백구면에서 38년 동안

종합목재기업인 전일목재산업(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기업의 대표로서는 최초로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해 활동 중이다.

이항로 군수는 "우리군 출신 성공한 기업인의 고향의 어려운 가정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장 운영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수·인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4개 권역 27명으로 구성돼 피해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 출동해 포획활동을 벌여왔다.

올해는 2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해왔으나 농한기에도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과수, 분묘 등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수렵장 운영에 따라 야생동물이 지역을 이탈하여 관내로 이동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연장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 특별판매전 성료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개최된 '정철 장수한우 특별판매전'이 수도권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 시행과 한우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장수한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수한우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100두 행사에는 장수군의 우수한 환경에서 생산된 1등급 이상의 한우만을 엄선해 까다로운 수도권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한 결과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고취와 판매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경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지난달 30일 무주읍 풀마트 사거리에서 생활안전 교통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송년회 등 연말연시 분위기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선별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캠페인과 더불어 주요 교차로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을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규 서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다각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경찰장구 사용법 교육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지역경찰, 112상황실 지령요원과 강력팀 직원 등 112총력대응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현장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전자총격기와 삼단봉 등 안전하고 올바른 경찰장구 사용법을 주제로 실시됐으며, 전북청 동로강사 김상덕 경감과 임대성 경위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단순한 매뉴얼 교육이 아닌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 모두가 전자총격기를 사용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력사건 상황을 가정해 삼단봉과 전자총격기를 사용해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과정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 진행됐다.

/장수=고판호 기자